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볼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볼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12절)



금주의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하고 세상의 종말이 사시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남은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8호 2013년 8월 3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시리아내전 이전 화학무기까지 등장!

미 언론, “이슬람 종파갈등 광기 흐르는 ‘비인간적 전쟁모드’ 발전” 보도

시리아 국민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군사쿠데타로 1971년 대권을 거머쥔 하페즈 알 아사드부터 2000년 그의 사후 차남으로 대권을 승계한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려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아사드 집안의 철권통치에 대한 국민 불만이 튀니지발 중동민주화 바람에 편승하면서 일어났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는 집권 기간 동안 반정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국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도전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82년 2월 ‘하마 학살’이다. 당시 무슬림 형제단이 반정부 항쟁에 나서자 하페즈는 정부군을 동원하여 3주간 하마 시를 봉쇄하고 전면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때 약 3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화학 무기까지도 반군에게 사용하며, 내전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여기에 유투브를 통해 반군과 정부군이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는 장면까지도 내보내면서 증오와 적개심을 확산시키는 비인간적 전쟁 양상으로까지 전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악인 “광기”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아사드 정권이 이웃 아랍국가에 비해 자국민들에게 더 폭력적인 이유는 약 12%에 불과한 소수 알라위파 무슬림이 다수 순니파 무슬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라위는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다. 632년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후 무슬림들은 누가 공동체를 이끌 적합한 지도자인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인 알리를 최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따른 사람들을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시아파 알리), 즉 시아파라고 불렀다. 알리를 초기 4명의 지도자 중 하나로 보는 순니파와 달리 시아파는



올해 특종사진 부문에서 풀리처상을 수상한 AP의 사진. 지난 2012년 3월 시리아에서 한 소년이 정부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오열하고 있다.

알리만이 적법한 지도자이고, 알리의 후손들이 그를 이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지도자를 시아파는 이맘(Imam)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이맘 알리부터 12번째 이맘까지 따

르는 사람들이 현재 시아파의 주류인 12이맘 시아파로 현재 이란이 대표적인 국가다.

그런데 시리아의 알라위는 종파의 원조가 11번째 이맘 하산 알 아스카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

무함마드 이븐 누사이르 알 나미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리아의 알라위는 종조의 이름을 따서 누사이르파 내지 나미르파로 불려오다가 프랑스가 시리아를 지배하던 근대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920년부터 알라위로 불리기 시작했다. 12번째 이맘까지 따르지 않고, 알리를 신격화해서 믿고 알리가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보았다는 비의적 해석을 하며 이슬람의 정형화된 예나 법을 따르지 않는 등 주류 시아파와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하페즈는 모스크 예배에 참여했고, 알라위 지도자들은 1973년 12이맘파 시아 종교지도자인 무사 알 사드르로부터 알라위가 12이맘파 시아파의 법적 견해를 얻어내 알라위가 이단이나 엄연한 시아파임을 천명했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1979년 이란혁명이후 시리아는 이란과 종파 연대를 하며 선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리아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순니 무슬림들 눈에 알라위는 이단이다. 따라서 정권을 쥔 알라위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페즈 알 아사드는 충성스러운 알라위로 채운 군대와 비밀경찰을 양성했고, 이들 기관은 정권안보의 중요한 축이 됐다. 사실 역사 속에서 알라위의 삶은 험난했다. 중동의 소수 종파들이 그러하듯 알라위 역시 생존을 위해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의 안사리아 산악지대에서 모여 살았다. 이들의 용맹함을 높이 산 프랑스 식민정부는 알라위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고 자치권을 주면서 보호했다.

(2면으로 계속)

박해받는 기독교인 어린이를 기억하자!

월드 바나바재단 크리스천 어린이 위한 사역 호소 보도

바나바 재단(Barnabas Fund)은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사역을 펼치는 바나바 재단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게 적대적인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인 어린이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바나바 재단은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행동 주간(Suffering Church Action Week)’인 2013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 주간에는 세계 기도의 날(Day of Prayer)인 2013년 11월 1일이 포함되어 있다.

바나바 재단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이슬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이 지역에서 소수 종교 공동체인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날들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바나바 재단은 전망했다. 바나바 재단은 기독교인인 박해를 받을 때 가장 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은 기독교인 어린이들인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폭력과 차별과 부당함에 노출되기 쉬운 상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 어린이들은 종종 학교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며, 시험과 진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다수 종교로 개종하라는 압력에 시달린다고, 바나바 재단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심지어 서구 국가에서도 젊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바나바 재단은 소개했다.

바나바 재단의 국제대표(International Director) 수크데오(Patrick Sookhdeo) 박사는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향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에게 영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이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수크데오 박사는 다가오는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행동 주간’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기독교인 어린이를 돕는 귀한 사역에 기도와 관심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3면
죄의 원뿌리 자유의 남용에서 찾는다



7면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16면
세계종교문화뉴스

한인 이민 목회의 로드맵을 제시한 자로 평가받는

배현찬 목사의 공동체 시리즈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성교는 이렇게



—드레미아 강해—

추천사

이민목회의 현장에서 피와 눈물과 발로 쓴 검증된 목회 이야기와 영적 리더십의 본질
(정인수 목사,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 담임)



—로마서 함께 읽기 및 적용—

추천사

탁상공론이 아닌 목양현장의 체험과 영감이 깃이 배어있는 성경공부 안내서
(유승원 목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담임)



—지역사회의 봉사 이론 및 실제—

추천사

성경적인 교회는 위에 세워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선교적 교회모델이 되는 선교의 전략과 전술
(호성기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담임)



배현찬 목사
Hyun Chan Baek, Ph. D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 30년 동안 꾸준히 개혁적인 목회를 지향해 오면서 사회선교적 사명을 일관성있게 실천하는 가운데, 2011년 섬기는 주 예수 교회가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침례교(PCUSA)가 수여하는 "사회 봉사상"을 받았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단단한 이론적 배경과 뜨거운 영성의 목회적 열정으로 균형있게 조화된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상을 세워 감으로써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한인교회 최후

미국 장로교 사회봉사상 수상!



주 예수교회 홈페이지 / www.ljkc.org
교회 전화 / 804-560-7500, 7509

교회 주소 /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인터넷 도서주문

www.joyla.com (조이 LA 서점) 1-800-662-7282
www.bandibookus.com (반디북 US) 1-888-880-8622

클란출판사



시론

제 흥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오래 전에 본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노래에 미친 사나이. 그래서 굶으면서도 노래를 부른다. 주인공은 군말 없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노래 부르는 재주가 좀 떨어지는 주인공의 남동생은 아버지의 타박을 듣다가 "이깟 노래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라고 대들며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한다. 아버지는 막대기로 아들을 때리며 욕박지른다. "야, 이놈아! 밥이 나온다고 노래하나? 노래는 제 흥에 겨워 부르는 거야!" 아버지는 얼마나 노래에 미

쳤는지 딸의 마음에 한이 서리도록 장님이 되게 하기까지 제 흥에 빠져 노래를 위해 살다 노래를 위해 죽었다. 당시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노래를 좋아한다지만 제 새끼의 눈까지 멀게 하면서 명창을 만들려는 아버지의 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그 아버지는 노래에 미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흥을 느낀 적이 있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의 선을 넘나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처음 믿은 성도들을 독려한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기세등등한 성들을 되찾아 가면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가족'들을 양육한다(14장).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히 때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만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죄수들이 듣게 된다. 그 결과 옥문은 열리고 수감자들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감옥의 간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물론 서편제의 흥과 바울의 흥은 유가 다른 것이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은 감동이 되었다. 사역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 흥에 겨운 것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설교학 교수 루돌프 보렌은 그의 책에서 "설교는 기쁨이다"라고 정의했던 말이 신선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다. 설교와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언뜻 쉽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이 생겼다. 보렌은 설교란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여 그것을 즐거이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글을 근거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설교는 기쁨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면 당연히 설교도 기쁨이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이도 언제나 기쁨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기쁨 일을 위해 쓰임 받으신 설교자의 삶도 한 마디로 기쁨의 삶이다. 이렇게 설교는 기본적으로 제 흥에 겨운 것이 되어야 한다.

언젠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 한 교인이 작은 선물을 손에 들고 찾아왔다. 조그마한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작은 탁상용 시계가 있었고 밑에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글이 있었다. 짙은 감동을 느끼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 과연 그렇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다.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30분도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자라는 자체로 감사해야 하며 명예나 부와 같은 다른 것들을 탐내서는 안 된다.

어디 설교자뿐인가!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은 제 흥에 겨운 자들의 봉사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교회 일처럼 의미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아주기는커녕 일을 열심히 해도 욕이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서도 누구 하나 인정해주기보다는 자칫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자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될 일도 없지만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는 마귀의 울무가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도 그런 남모르게 흘리는 땀과 눈물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서 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칭찬 대신 비판과 비난이 붓발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도 제 흥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교회사역의 묘미!

알카에다 역습 지속적...유튜브 전쟁으로

미 언론, "이슬람 종파갈등 광기 흐르는 '비인간적 전쟁모드' 발전" 보도

<1면에서 계속>

알카에다는 소수종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하페즈 알 아사드는 늘 은밀하고 감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시리아에 민주주의가 통용될 리 만무했다. 반정부 시위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2001년 그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둘째 아들 바샤르는 원래 정치에는 뜻이 없는 안과 의사였으나 후계자였던 큰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뜻하지 않게 정권을 물려받게 됐다. 18개월 동안 영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평소 개혁개방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식견이 높다는 평가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바샤르는 아버지가 잡아들였던 정치범을 석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약속하는 등 '다마스쿠스의 봄'을 열어 변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개방이 정권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권 내 지도층의 조언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정책을 중단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인물은 정권의 주축 알카에다 군을 통솔하는 남동생 마하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속 없



이라는 의미이고, 2012년 1월에 창설됐으며, 아사드 독재에 대한 첫 시위가 발생한지 1년 만에 탄생했다. 그 탄생에 도운 것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였다. 이라크는 시리아에서의 전선 탄생을 위한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했고, 현재도 시리아 지하드 전선의 은신처다. 시리아 전선은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본부로부터의 지원도 받는다.

사드 체제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반군의 최정예이며 알카에다의 특이한 동시다발 폭탄 테러에 능하다. 그들을 지원하는 이라크 지부가 폭탄을 제조, 시리아 지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누스라는 빠르게 세력을 확산시키고 시리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조직원을 모집 중이다. 최근 지하드 웹사이트에 공개된 130

이다. 현재 지하드주의자들은 시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사드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은 더 크다. 시리아에서 근거지를 마련한 그들은 레반트 지역 전역과 유럽에서의 미국 이익을 위협할 것이고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동맹세력을 괴롭힐 것이다.

알누스라 전선이 제기하는 최대의 위협은 그들이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을 장악하는 것이다. 아사드의 아버지가 1980년대에 사린가스 제조를 위한 화학무기 제조시설을 만들었다. 알카에다는 지난 수년 동안 대량파괴무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시리아에서 그것을 얻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간의 SNS 전쟁 역시 지구촌의 도를 넘어선 인간의 광기까지 자아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타임지는 보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랍의 봄'에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시리아 내전엔 '유튜브 전쟁'이 있다.

2010-2011년 튀니지, 이집트에서 독재자를 몰아낸 페이스북은 독재자에 대한 저항의지를 고취시

반군과 정부군 피 먹는 잔혹행위가 유튜브 통해 전 세계로 확산 미국, '아사드 처단' 국제사회 여론불구 무기반입 항방 몰라 머뭇

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컸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기대라도 안했을 텐데"라는 원망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이러한 배신감이 중동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국민은 정권의 전복을 원한다"는 과감한 담벼락 나서로 표출됐고, 거듭된 강경진압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정권교체를 보고 자신감을 얻은 반정부군의 내성과 희망을 키워 시리아 내전으로 확대됐다.

데일리베스트(Daily Best)의 브루스 리델(Bruce Riedel) 기자는 "시리아에서 알카에다가 급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시리아 내부 불안을 틈탄 알카에다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정확하게 짚어 준다. 바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는 불과 1년 전에 조직됐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알카에다 지부이고, 이슬람권 전역에서 조직원을 모집 중이기 때문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승리전선 혹은 시리아 인민을 위한 지원전선

의 순교자 명단 공고에서는 시리아에서의 순교를 기념하고 있으며, 최근 네 달 동안의 순교자들 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알누스라 전선 소속 전사자들이다.

독재자 아사드는 붕괴 초반부터 테러리스트들과 알카에다를 비난했다. 하지만 권력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전쟁을 시작한 아사드가 알카에다를 시리아로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다. 내전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시리아의 알카에다는 더욱 강해질 것

다. 알누스라의 조직 규모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현 시리아 반군의 1/4을 구성한다고 추정한다. 그들의 근거지는 알레포 부근이고 수도 다마스쿠스보다는 북부에서 더 강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아

미 언론, "이슬람 종파갈등 광기 흐르는 '비인간적 전쟁모드' 발전" 보도

다. 현재 지하드주의자들은 시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사드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은 더 크다. 시리아에서 근거지를 마련한 그들은 레반트 지역 전역과 유럽에서의 미국 이익을 위협할 것이고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동맹세력을 괴롭힐 것이다.

알누스라 전선이 제기하는 최대의 위협은 그들이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을 장악하는 것이다. 아사드의 아버지가 1980년대에 사린가스 제조를 위한 화학무기 제조시설을 만들었다. 알카에다는 지난 수년 동안 대량파괴무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시리아에서 그것을 얻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간의 SNS 전쟁 역시 지구촌의 도를 넘어선 인간의 광기까지 자아내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타임지는 보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랍의 봄'에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시리아 내전엔 '유튜브 전쟁'이 있다. 2010-2011년 튀니지, 이집트에서 독재자를 몰아낸 페이스북은 독재자에 대한 저항의지를 고취시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죄의 원뿌리 자유의 남용에서 찾는다

CT, 풀러신학교 마거릿 슈스터 교수 기고문, "원죄의 수수께끼" 통해 인간의 타락과 구원 소개(하)

유혹의 또 다른 결정적인 요소는 자만심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과연 인간의 탐험에 제약이 필요한가, 하는 의심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를 잘 표현한 만화가 있다. 에텐동산에서 애플 컴퓨터에 매료된 한 여인에게 뱀이 이렇게 말한다. "물론 그분은 너에게 그걸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 그러면 너는 그분이 가진 모든 지식을 갖게 될 테니까." 성경의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어떤 선한 동기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옹졸한 질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과학적인 시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금지 명령



리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시는 분도 아니다. 규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경계를 지키는 분도 아니다.

그분은 중심에 계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저 경계 바깥쪽에 머무시는 분이려면 우리의 중심은 비어 있었을 것이다. 즉 삶을 구성하는 참된 중심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관계가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경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대신 경계를 강화하려 하고 경계를 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수록 우리는 중심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텐동산의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피어날 목적으로 고안된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생각과는 다른) 참된 그분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준다. 완전한 지혜로 선과 악을 정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 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온전히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또한 아무 문제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자유도 없다. 우리는 타락했으며 피조세계는 아담과 하와와 잘못(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저주받고 있다.

하지만 끝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중심으로 계속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 뒤집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준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문은 열려있지만 출입금지: 하나님 뜻에 맞춰 피조물의 의무와 순종 훈련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선악과: 완전한 지혜로 선과 악 정의하시는 하나님 드러내

은 사악하고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가진 압제자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상일까?
어쨌든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그러한 선이 절대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절절에 달한 인간의 자만심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는, 학식 임자를 "신의 입자"라 부르는 사람들이다(이들은 수많은 진지한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우리는 '지식'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만화에서는 한 천사가 손에 번갯불을 쥐고 하나님께 "지구를 멸망시킬까요?"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그를 말리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
창세기 3장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사소한 선택, 불신, 자만심은 창세기 기사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 세 가지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왜 하나님은 애초에 그러한 상태를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왜 뱀을 등장시켰는가? 신학자 칼 바르트의 질문처럼, 왜 문을 열어놓고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우셨는가? 왜 문을 닫아두시지 않은 것인가?
바르트는 문이 열려있지만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 뜻에 가까이 우리를 맞추고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여 가까이 순종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왜일까?
디트리히 본회퍼는 자신의 저작 "창조와 타락"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본회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즉 금지된 열매가 달린 나무가 왜 다른 데도 아닌 에텐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는지 질문을 던진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 바깥쪽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우

(2면에서 계속)
지금까지 88만5천여 명이 본 이 비디오는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를 기반으로 반군에 속한 '우마르 파루크 여단'을 이끌고 있는 칼리드 하마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죽은 정부군의 시신에서 심장과 폐를 꺼낸 뒤 카메라 화면에 대고 "바샤르 아사드(시리아 대통령)의 개야, 나는 네 심장과 간을 먹겠다"고 선언한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는 피 묻은 살점을 이로 찢는다. 이 비디오는 3월 26일 촬영된 것으로, 정부군은 반군이 잔인한 폭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드는 이후 타임과 스카이프를 통한 인터뷰에서 "내가 적의 심

장을 먹은 사람이 맞다. 맛이 좋았다. 죽은 군인은 아사드와 같은 알라위파다. 내 목표는 모든 알라위파를 다 죽여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처럼 잔인한 '식인'은 탈레반도, 알카에다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3월 발발한 시리아 사태는 처음엔 '아랍의 봄'의 흐름을 타고 독재자 아사드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지만 곧 내전으로 변해갔다. 분노가 고조된 데는 그해 4월 유튜브에 올라온 '순교자 소년, 합자'라는 동영상도 한몫했다. 이 비디오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3살 소년이 고문을 받고 사지가 잘려 죽은 모습이 나온다.
지난 2년 동안 정부군과 반군이

각자 유튜브 등에 공개한 비디오들은 수없이 많다. '전리품'으로 적의 귀를 자르고 손가락을 베어내는 모습, 민간인을 마구 때려 살해하는 장면, 초도화된 마을에 겹겹이 쌓인 아이들의 주검... 젊은 군인이 엄마와 통화하면서 "엄마, 들려? 나 지금 테러리스트를 죽이고 있어"라며 포로의 머리에 총을 쏘는 것도 있다.
이런 잔혹물들은 선과 악,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물며, 정부군과 반군 양쪽 모두를 피해 굶주린 전범으로 만들어버린다. 미국은 독재자 아사드 처단에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반군에 무기 지원을 고려하기도 이 무기가 누구에게도 흘러갈지 몰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군 중 알카에다와 연계된 '누사라 전선'을 배제시키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간을 먹는 하마드'는 '누스라 전선'과도 상관이 없다.
결론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해 손쉽게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시리아 내전은 인류 최초의 '유튜브 전쟁'이 됐다. 타임은 "식인의 금기까지 넘어선 시리아의 광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제는 한번 노출이 되면 회복 불가능인 사린가스를 뿜는 화학무기까지 등장하고 알카에다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 그 끝이 어디든 전세계 사람들은 이제 웹을 통해 잔혹행위를 목도하게 됐다!

소망 칼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구역성경 집안에 보면 인생의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 많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 한 구절(잠1:7)을 근거로 하여 "그리고 또 다음에는?"이라는 주제로 교훈을 받고자 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학위나 자격증, 출세나 성공 명에 또는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건강 등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 사람들이 쾌락과 물질만 좋아하다보니 것처럼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인생에게 소중한 것은 참된 지혜이다. 즉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인생이 꼭 알아야 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 재간 바쳐 헌신하는 삶이 인생의 참 지혜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요 행복이다.

로마의 어느 작은 대학 입구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고 한다. 어느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장학단체를 찾아갔다. 그 때 어느 귀족부인이 그 젊은이의 장래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였다. 젊은이는 자신 있게 자기의 포부(抱負)를 밝혔다. "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하고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사업을 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은 계속되었다.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겠지요" "그리고 늙어 죽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글쎄요" 그러자 갑자기 부인은 호통을 쳤다.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 이 일이 있던 후 젊은이는 그 부인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장학금을 얻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후에 그는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입구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이라는 표어를 붙여놓았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생의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9:10)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낳아 잘 기르고 가르치고 집을 장만하고 건물을 사고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하고 이 땅에서의 꿈과 희망을 이룬 다음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또 무엇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14:8)라고 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은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지금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소원 성취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러나 그것의 사용 목적과 활용 방법을 듣고 긍정적인 때에 자녀의 희망과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시다.

담임 목사 청빙

말리안장로교회는 400명 이상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담임목사님을 찾습니다. 39년의 역사를 가진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성전과 교육관이 있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Raleigh, North Carolina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격

- 미국 이민목회경력 5년 이상 되신분
- 정규 신학 대학원 (M.Div)을 졸업하신 분
- 이중언어 (Korean and English)가 가능하신 분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미국체류가 가능하신 분
- 미국장로교 (PCUSA) 교단에 소속되어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 Personal Information Form (PCUSA에 속한 분들 한에서)
- 이력서 (한글 및 영문) Immigration/Citizenship Status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소개서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 고백서
- 최근 6개월 설교CD, DVD, 혹은 MP3 2편

문의 및 서류제출
정 역 장로 (919)274-1690(Cell) / Yeup Chong Chai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Address:7712 Hilburn Drive Raleigh, NC 27613
Ychong1@gmail.com

제출형식
설교동영상 CD, DVD 등은 우편 혹은 URL link로 제출해 주시고 이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전자 file로 제출하시되 우편송부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나 Referen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10/15/2013

랄리 한인 장로 교회
(DuRaleigh Presbyterian Church)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orth Carolina 27612 / 919-787-4673, www.duraleigh.org



후임목사님 청빙

뉴욕실로암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에 목사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
- 제출서류 1) 정규 신학교 M.Div, 졸업증명서
2) 목사 안수 증
3) 이력서(사진, 가족, 학력, 경력사항)
4) 자기 소개서
5) 목회 계획서
6) 최근 영상 한국어 설교2개 와 영어설교 1개
- 제출 마감 2013년 12월31일
- 제출 처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35-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문의: 김인규 장로, (347)419-2929, inkyul@gmail.com

본교회에서는 EM중고등부를 담당하실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뉴욕실로암 장로교회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자존감(self-esteem)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형편없

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대로 사십니까? 자존감이 없거나 무너진 사람은 불행하며, 대부분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그것에 따라 건강한 자존감과 병든 자존감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근거가 나 자신, 곧 나의 외모, 학벌, 성공, 능력, 소유, 업적 등에 있다면, 나의 자존감은 병든 것입니다. 그런 자존감은 나를 교만과 착각 속에 살게 하며 언젠가 헛것으로 초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렘 9:23).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존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첫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 있습니다(창1:26-27).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사라질 나의 외모, 능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둘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스스로 천한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전락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존귀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끌어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 없는 학문과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왔고 혁명과 권력에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며 외모를 가꾸고 성형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학벌이 없어도, 외모가 못 생겨도, 삶이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가난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한종수 목사
(얼바인침례교회)



본 비유는 실제 결혼식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들러리로 뿔뿔한 사람들이다. 신랑이 어디 오므로 다 졸며 잠든 사이, 밤중에 신랑이 왔다. 열 처녀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혼식에 소요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본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가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신앙의 형식 '등불'

본문에서 말하는 등불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즉,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뜻한다. 등, 불, 기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학벌, 외모, 직장, 큰 집, 비싼 차 등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신앙생활의 겉모습보다 예수님과 형성된 일대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겉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겉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슬기롭다는 것은 현명하고 분별이 있거나 또는 지혜가 있다는 의미이다.

신앙이 오기까지는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슬기로운지 알 수 없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등불을 든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와 같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완전히 나누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인격적인 선택이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등만 가지고 있을 뿐 기름을 준비하지 못

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열정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에게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마음속에 두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절로 준비하게 된다.

계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열정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 신앙

미래학(Futurology)과 종말론(Eschatology)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에 대한 충격'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언급했다. 미래학은 시작이 과거에서 출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에 대한 진단을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왔다는 근거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이다.

이에 반해 종말론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의 도래를 전제해 현재를 조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목표가 분명하면 현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이 바로 나온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콘돌리자 라이스를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흑인목사의 딸이었다. 대학교 2학년까지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어떤 계기로 피아노가 자기의 적성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조지프 코벨이었다. 그가 소련에 대해 특강할 때 특히 스탈린

기름을 준비하라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Be Ready!' 항상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때와 시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한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전혀 심판에 대비하지 않았다. 베드로 사도 역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는 것이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 하고 기뻐하는 견고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인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 기름, 그릇, 의복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주의에 매인 모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회개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였다. 현실에서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한다. 천국은 미리 준비한 자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진정한 신자의 증거이다.

기름은 성령의 인치심을 뜻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만이 부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명목신자와 불신자는 제 2차 부활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최후심판의 대상이 된다(계20:12-15).

예수님의 비유설교는 오늘날도 선포되고 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7:10). 에스라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설교를 연구하고 준행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

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날을 소망할 때 주님과 함께 들림 받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해 한번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하며 복수나 질투심 없이 하나님 앞에 거러짐 없는 삶을 다짐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신랑예수가 오신다 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저야 할 십자가를 겸손히 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날을 준비하게 되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13절)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집트의 봄 바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온 세계는 소용돌이 속에 있던 이집트의 정국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주간에 이집트 군부는 자신들의 쿠데타 성공을 화려하게 자축했다.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무르시 지지 데모대와 유혈충돌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군부는 강력한 힘으로 밀어부쳤다.

그동안 중동에 대한 외교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집트의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지원한지 2년 후에 명색만 민주적인 이집트 정부를 받아들일 태세이다. 미국은 새로운 선거로 포괄적인 정부가 구성되면 군부가 권력을 이양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중동지역에 대한

대한 압박이다. 미국 오피도어스는 16일 "이집트가 용광로의 불로 휩싸이고, 기독교인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성난 사탄의 공격과 다르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테러를 가해, 결국 사망과 평화와 희망을 잃게 하고 신앙을 흔들다"고 말했다. 한 콥트복음교회 지도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시대 이후 목격한 적이 없는 심각한 압박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20일까지 이집트 내에 적어도 58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교회들은 물론 기독교 단체들, 선교기관들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왜 이집트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가?

향해 기도를 부탁했다. 현지교회들에게는 결속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 현지신문인 마스리 알음은 "콥트교인들은 예배당들이 파괴되는 것을 이집트 회복을 위한 희생으로 간주한다"고 고백했다. 현재 이집트 인구는 8300만명 정도인데 콥트교회 등 기독교인 인구는 10-12% 정도라고 추산된다.

이집트 교회는 긴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1세기 중엽인 주후 60년경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됐다. 로마시대의 핍박을 거치면서 수많은 콥트교도들이 순교했다. 혹독한 로마의 박해를 거치면서 수도사막의 수도원 유산과 콥트어 신약성경 등을 남겼다. 이후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 등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또 아타나시우스와 키릴로스 같은 지도자들이 활동하기도 했다.

7세기에 이집트가 이슬람화되면서 약화됐지만 신앙을 지켰고, 12세기 말까지 이집트가 완전히 이슬람화 되면서 14세기에 또 다시 콥트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다. 이들은 긴 역사의 격변기 속에

를 상징한다.

아랍의 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아랍권의 독재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역설적인 것은 독재자들이 있을 때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억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숨쉬기 어려운 아랍권의 성도들은 더 심한 핍박을 직면하게 된다. 반면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세속주의자들이 통치하게 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랍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이러한 흐름과 힘의 역학관계를 주시하면서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의한 민주화인가를 무시할 수 없다.

감사하게도 이집트는 일단 유혈충돌사태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혈대치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 너무도 안타깝다. 또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생존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정국이 안정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도 줄어들



핍박 받는 이집트 교회를 위한 긴급 기도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미국의 고민은 미국의 우방인 이집트가 설령 독재정권이라 해도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데 있다. 이번에는 주변국인 이스라엘과 서방 언론과 일부 아랍왕정들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다.

이집트 사태로 이슬람세계가 양분되었다. 터키, 이란, 카타르는 무함마드 무르시 진영에 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등은 쿠데타 세력 편에 섰다.

이미 지난 2년간 전세계의 헤드라인을 이끌었던 아랍의 봄의 예찬은 사라졌다. SNS와 인터넷 시대의 강력한 힘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었다. 현 이집트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을 배제한 새로운 정치지향으로 새 판을 짜려고 한다. 이집트내의 무슬림형제단의 과격한 정치적인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결사항전을 시작하면 이집트는 내전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지금은 시리아 문제로 정신이 없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과 서방세계가 게임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아랍의 봄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아랍계 속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서 핍박을 견디며 1900년 기독교 역사를 지켜왔다.

총신대 라온성 교수는 "콥트교회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이집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4-5세기에는 유대파와 이교도 등과 싸웠다"고 말했다. 콥트교회는 칼케돈 공의회 이후부터 이집트의 민족 종교로 나타났고 다른 교회들과 예전과 의식에서 구별된다.

이집트 교회는 콥트교회에 이어서 17세기부터 시작된 가톨릭의 노력으로 1899년 콥트 가톨릭교회가 생긴다. 당시 교인은 10만명 정도였다. 19세기 이후엔 교회교육에 힘썼다. 교회학교와 신학교를 세워 훈련시켰고 많은 젊은이들이 개혁성향을 가지게 된다. 1926년에는 미국선교부가 콥트복음교회를 세우면서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세계기도정보의 편집자 제이슨 샌드릭은 "이집트교회는 1900년간 차별 속에서 신앙을 유지했다. 고난의 역사는 순교자의 교회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평했다. 이집트교회가 경험하는 핍박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당한 핍박을 상징한다. 더 구체적으로 중동과 세계의 이슬람권 아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

들게 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은 열국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속에서 성도들이 일어나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처럼 땅끝까지 나가야 한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으로 나가는 소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소원하는 이집트의 봄은 공공 열어붙은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것이다. 위기 속에 있는 이집트와 특별히 이집트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집중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집트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 피를 흘렸다. 이 희생 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주시는 부흥이 오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집트가 전 아랍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성도들의 당하는 핍박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넘칠 것을 믿는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오픈자카운티의 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열심히 말씀도 좋고 성도들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되어야 하는데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교회가 하나가 잘 안 되고 비판만 무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협력하여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든그로브 이 집사

A: 교회의 부흥은 모든 이민교회의 소원이요 목표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연합, 협동하십니다. 성부하나님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하나님은 2000년 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 협동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옛날 몽고의 징기스칸은 임종 시에 자기의 다섯 다양성 인정하고 협동함으로 한 교회공동체 이뤄야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화살을 하나씩 주어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쉽게 꺾었습니다. 이번에는 2개씩 주어 한 번에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쉽게 꺾었습니다.

이번에는 5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모아 쥐고서 한 사람씩 꺾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이번에는 잘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따로따로 되면 힘이 약해 잘 꺾이지만 너희 다섯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아무도 너희를 대항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협동 단결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힘을 모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함께 힘을 같이하는 협동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의 동정이나 지폐에는 3가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신앙입니다. 2)Liberty-자유입니다. 3)e pluribus unum 이 플리버스 유닛-이것은 라틴어로서 "여럿이 모여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유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하나라는 미국인들의 생활철학이자 원칙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 종족 언어들이 모여 삽니다. 인종 동물원과 같습니다. 생긴 것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미국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나이도 성격도 학력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참으로 교회는 다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룰 때 그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겠네 돌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돌과 돌이 모여 커다란 함성될 때 저 어리석은 자 깨우칠 수 있네' 교회공동체가 돌과 돌이 모여 힘을 모으는 사랑의 삼겹줄이 될 때 어떤 목표도 달성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될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가운데서 큰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의 유의해야 합니다. 1)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롬 15:7). 2)나와 다르다고 다른 지체를 쉽게 비판하는 습성을 버리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체끼리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십시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만남과 만남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유대계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만남'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만남'이 우연, 혹은 운이나 팔자소관이라고 미혹하지만 성도들에게 만남은 하나

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필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과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닫힌 미래를 열어주고, 관계를 회복케 하며 병을 낫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국땅에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룯의 만남, 이방인으로 젊은 과부가 된 룯과 그 가문을 책임져준 '기업 무를 자' 보아스와의 만남, 성전 미문의 앞은뱅이 거지와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사도 베드로의 만남, 깊은 우정으로 다윗의 생명을 지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님의 만남, 그리고 오늘날 미국 땅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안의 필연, 즉 '좋은 만남'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에 주는 피해는 큼니다. 삼손과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큰 슬픔을 주었고,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과의 만남은 백성들에게 힘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고, 산발랏과 도비야의 만남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아합왕과 이세벨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관계를 깨뜨려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가문을 허물고 민족을 망하게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고

통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만남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만남'도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만남'으로 바꾸게 하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구세주와 죄인이 만나는 곳,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곳, 부부가 만나는 곳, 성도와 불신자가 만나는 곳,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곳, 순장과 순원이 만나는 곳, 그리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축복 되지 않은 만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만남은 예수님의 맛이 나는 '맛남'이 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거지, 유럽에서 비단 장사를 했던 루디아, 질병에 걸려 고생했던 에바브라도, 피혁공 시몬,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사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재정을 관리했던 내시, 이탈리아의 군대장인 고넬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난 디모데,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맛을 내는 '맛남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만남이 예수의 맛을 내는 '맛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총기난사 대참극 막은 '기도의 힘'

미국 조지아 주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침착한 기도로 학교에서의 총기 참사를 막았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미국의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였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로널드 맥네어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마이클 브랜든 힐(20)은 몸에 500발의 실탄을 담은 탄띠를 휘감은 채 AK-47 소총을 들고 학교로 들어섰다.



이 학교 회계 담당 직원인 앤투아네트 터프(33·사진)는 총을 쏘며 복도로 걸어가는 힐을 보았다. 터프는 무작정 눈을 감고 힐을 위해 기도한 뒤 복도로 나가 대화를 시도했다. 힐은 바닥에 총을 쏘며 터프를 인질로 잡고 방송국에 전화하라고 위협했다. 터프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피신하는 동안 힐을 위로했다. 남편 없이 장애아를 키우는 자신의 처지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힐의 아픔을 보듬으며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다독였다.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통해 힐의 마음은 차차 누그러졌다. 힐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터프와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마무리됐다. 이웃 주민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터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터프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념 갈등 우크라이나, 이번엔 '동성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에 갈등이 커지며 양측의 상징물을 훼손하는 '동성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20일 "며칠 전 중부도시 베르디체프에 설치된 러시아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 동상의 머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 리보프에 세워진 '우크라이나 독립군 기념 동상'도 비



슷한 시기에 머리가 잘려나갔다"고 밝혔다. 독립군 기념 동상은 2차 세계 대전 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며 소련군과 맞선 우크라이나 독립군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민족주의의 상징물인 이 기념 동상은 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감싼 쇠사슬을 부수는 형태이다.

2004년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촉발된 오렌지 혁명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2개의 레닌 동상이 부서지거나 페인트가 칠해지는 등 훼손을 당해왔다. 그러나 2010년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며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자 독립군 기념 동상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리코프에서 심야에 중장비를 이용해 독립군 기념 동상을 철거시킨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개의 기념 동상이 훼손당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옛소련권 경제통합체인 관세동맹과 유럽연합(EU)가입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이념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작년 12월 의회 의장 선출과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등을 둘러싸고 양측은 회의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민족주의 성향인 야당 의원들이 공산주의 성향인 여당 출신의 의장 선출을 반대하며 단상을 점거해 의회가 이수라장이 됐다.

역사상 최악의 예수 벽화' 복원 돈방석에

지난해 8월 스페인의 한 80대 여성이 19세기 교회 벽화를 복원하다가 원작 훼손 논란에 휘말린 일이 있었다. 교회 신도인 세실리아 히메네스(82)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박해받는 예수 벽화를 복원하면서 원작과는 판판인 원숭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다. 만화에 나올 법한 원숭이 그림에서 면류관을 쓴 예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원작 화가 후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스페인 언론은 "역사상 최악의 복원", "광진 작업" 등으로 어이없어했다.



그렇지만,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복원 작업이 인터넷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다.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

라'라는 뜻인 '에케 호모'(ecce homo) 벽화를 '이 원숭이를 보라'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다. 이후 이 '실책'을 보려고 지난 한 해 동안에만 5만7천 명이 작품이 있는 스페인 동북부 보르하시 교회를 찾았다가 AFP통신이 21일 교회 운영 단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예상 밖의 인기로 히메네스도 돈방석에 앉게 됐다. 히메네스가 작품에서 나오는 이익의 49%를 받기로 이날 교회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교회 재단은 관광객들로부터 현재 1유로(약 1천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또 티셔츠와 커피머그잔, 포도주병 등에 그림이 사용될 때 나오는 저작권료 수익은 엄청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히메네스는 이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히메네스와 재단이 그림에서 나오는 돈을 모두 자선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메네스는 지역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쁜 것 같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콥트교회, 테러로 사상 첫 주일예배 취소

미국의 케이블 보도채널 폭스뉴스는 21일 "1600여년 콥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교회가 주일 예배를 취소했다"고 이스라엘 지역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집트 북쪽 민야의 한 교회는 테러로 예배를 취소했고, 또 다른 교회도 기도회를 열지 못했다. 동정녀마리아교회의 셀웨인즈 로프티 목사와 데글라의 모나스터리교회의 이브라힘 목사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나스터리교회를 포함한 교회 3곳을 파괴했고, 한 극단주의자가 교회 벽에 '이 교회를' 순교자들의 모스크에 바치라'고 적어 놓았다"고 전했다.



콥트교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토착 기독교교회로 교인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동체다. 7세기에 이집트가 이슬람화 된 후부터 분과 갈등의 표적이 돼왔던 이들은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왔다. 최근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도 힘을 보태 무르시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콥트는 '이집트'란 뜻으로 사도바울과 전도여행을 했던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운 이후 유래됐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과도정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

서 1000여명이 사망했다. 지난 6월 말부터 격화된 소요사태로 지금까지 교회 40여 곳, 이집트성서교회 소속 기독교서점 3곳, 기독교학교 3곳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하원, 동성애자 헌혈 금지 법안 추진

동성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과학위원회 부위원장 미하일 데그타레프는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동성애자들을 헌혈 위험 그룹에 재포함시키는 헌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동성애자들을 이 그룹에서 제외하고 나서 비전통적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데그타레프는 "여러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헌혈을 받는 기관이 혈액 채취에 앞서 기증자에게 동성애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러시아 보건부는 지난 2008년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모스크바 시장 조기선거에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인 자유민주당 후보로도 나선 데그타레프는 시장으로 선출되면 동성애자들의 시위를 한밤중에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적 성향의 전통적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에선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 동성 결혼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으며 동성애자들의 시위는 자주 정교회 신자들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2%나 됐다. 같은 달 말엔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표됐다. 법률은 어린이들에게 비전통적 성관념(동성애)을 형성하는 정보를 유포시키거나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정보를 주입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 루블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률은 러시아 국내와 외국의 인권단체와 동성애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독서 여행



《열정 크리스천》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세속적 이기주의의 가득한 오늘날, 적당히 믿는 타협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래디컬(radical)하지만 제대로 믿는 열광적인 크리스천을 위해 쓴 책이다. 교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 참된 기독교 지식을 보다 쉽게 알고 싶은 초신자, 예수의 참된 영성을 열광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진 성도들에게는 첫사랑과 믿음의 성숙을 찾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책이다. 옥수영 지음 / 368면 / 13,000원



《얼굴》 영국 로얄홀로웨이 칼리지(Royal Holloway College)의 기독교 단체인 EACF(East Asian Christian Fellowship)에서 엮은 큐티 시집으로 시를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큐티집이자 전도용 책이다. 시뿐 아니라 사진, 해설, 말씀, 기도, 적용 등의 순서를 거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창조주와 구속주를 소개한다. 영국 풍경 사진을 담고 있고 초신자도 혼자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선 시, 글 / 런던대학 Royal Holloway College EACF 엮음 / 168면 / 10,000원 / 신국민 컬러 양장

《용서가 주는 선물》

용서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조그마한 씨앗이다. 그 속에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정시키는 가능성이 들어 있으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용서가 가진 힘에 대해 말한다. 용서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용서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 로버트 워렌 지음, 김묘정 옮김 / 304면 / 12,000원



《지치지 않는 영성》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영성을 깨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부흥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불씨를 당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박현 지음 / 288면 / 12,000원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 (1)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 흔히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은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로는 흔히 '탈현대주의(脫現代主義)' 즉 현대주의 혹은 현대성을 이탈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 뛰어 넘고 극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좁은 의미로 이 말이나 이 운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해체주의' 영어로는 디컨스트럭티비즘(Deconstructionism)이란 말을 사용하여 '현대'로 표방하는 모든 것, 즉 서구 지성사에서 계몽주의시대 이후에 찬양한 인간의 이성, 과학성,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합리성과 인간 중심주의 등에 대하여 과격하게 비판하고 '해체'하는 지적 혹은 예술적 운동으로 말하기도 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위에 열거한 현대성의 특

징들에 대한 비판, 혹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이 문화전반에 대한 언어로 사용된 것은 1956년 토인비의 "역사가의 종교이해"에서였다.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자포자기, 도피, 표류라고 보았는데 언어, 관습, 종교 등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아무것이나 무차별적으로 조점 없는 혼합주의와 무비판적 관용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본질을 한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의 특징이 어느 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을 거

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로 형성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토대가 되어 절대 진리의 기준을 흐리게 하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의 현저한 특징인 다양성의 수용의 한계를 넘어 진리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소고는 다원주의의 오류를 들어내고 복음의 위대한 절대성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요 기본 사상을 들어내어 그에 대한 위협성을 깨닫고 진리수호를 위한 경계(經界)를 삼고자 한다.

2. 종교 다원주의의 개념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erger)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사회가 종교 전시장이 되어 사람들이 기독교만을 불가피하

충성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충성은 자원적인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의상 확실한 것이 못 된다. 결국 과정으로 이전에는 권위 있게 부과될 수 있었던 종교적 전통을 이제는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더 이상 구태의연하게 강요받지 않는 고객들에게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원주의적 상황은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제도가 매개기관이 되며, 종교적 전통은 소비자 상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종교 활동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

필자가 사는 이곳 뉴욕의 조그마한 도시 후러싱(Flushing)만을 보더라도 피터 버거의 말에 이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러 민족만큼이나 많은 종교가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각 종교들이 자유경쟁구도를

신을 보장한다는 소위 종교의 가치중립을 주장하는 종교 신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한 학자는 존히크(John Hick)으로 그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존재론적으로 많은 신들이 있다는 가설이다. 둘째는 한 종교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반면 다른 종교는 잘못된 우상을 섬긴다는 가설이다. 셋째는 하나님은 한 신으로 그가 만물을 창조하였고 만물의 주가 되고 다른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설이다.

존히크는 이상의 세 가지 가설 가운데 현대는 부득이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유일성을 제거하므로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 놓고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한 보편적인 구

심신학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바르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피조물이 동참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교제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작정하셨다. 이 동참은 창조 전에 영원에서 작정하셨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으로 그분의 은혜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유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를 말하면서 유기는 부정한다. 작정과 은혜란 유기도 포함된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의하고 제한한다. 당연히 유기를 믿지 못하는 그에게는 자유교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에게는 상관없다. 또한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선택되었고 구원되도록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힌두교도나 불교도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나 다 동일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할 일은 전도가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구원, 곧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모든 종교는 구원과 신을 보장한다는 종교의 가치중립 주장 바르트, 하나님의 '작정' 과 '은혜' 는 주장하나 '유기' 는 부정

게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종교적 대안이 많아 이단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이것을 '이단적 명령'(heretical imperative)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란 다양한 많은 종교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며 피터 버거는 현대 사회는 종교도 시장 경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다원주의적 상황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들의 세부적인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 간에 탈 독점적인 종교적 기업들이 고객 집단의

이루어가고 있다. 피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람직한 다양성의 조화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원화 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달라진다. 단순한 다양성의 공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말할 때 그것은 다양한 종교들이 그저 단순히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구원과

원의 조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로마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카알 라이너의 '의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암묵적인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다른 종교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바티칸 공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존히크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20세기 최대 신학자로서 품던 칼 바르트(Karl Barth)의 핵

칼럼 음악목회 (13)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무엇이 새노래인가?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장



서울 어느 교회에 '한국의 바하'라고 불리는 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새로운 찬양곡을 작곡해 찬양대를 연습시켜 주일 예배에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계속되는 힘겨운 일에 탈진해 30대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과연 새노래가 무엇이기에

젊은 나이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빨리 가야했을까요? 시편에는 6번씩이나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사야서와 계시록에도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새노래라는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모이는 집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

르는 찬양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눈과 입만 따라가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 한 번은 찬양대원들에게 찬송을 함께 부르고 난 직후 모두 찬송가를 덮고 질문해보았습니다. "지금 금방 부른 찬송3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

은 대부분의 대원들이 뜻을 모르고 박자, 음정만 틀리지 않게 부르고 있었고 가사는 그저 붙여 부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이 부르는 찬송을 현 노래라고 한다면 새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느 지휘자는 한 번 연주한 찬양곡을 다시 재탕하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항상 새로운 노래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다시 부를 노래가 거의 없을 것이며 매년 새로운 찬송가집을 편찬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이 아무리 제목과 가사와 곡이 달라진다고 해도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내 영혼에 깊은 감동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노래가 될 것입니다.

새노래란 전에는 별 의미 없이 습

관적으로 부르던 노래가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부를 때 전혀 다른 노래 즉 새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여 년 전 흥행했던 영화 '타이타닉'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너무 각색된 'LOVE STORY'와는 달리 역사적인 사실은 마지막 그들이 여객선과 더불어 차가운 얼음 속에서 빠져죽기까지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라고 가장 진실된 찬송을 목이 메게 부르다가 그들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찬송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천국문 가까이에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애독자 여러분! 세상의 끝 날이 오면 이 땅 위에 예언도 그치고 방

언도 그치고 기도도 설교도 헌금도 다 그치지마는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한 것은 찬양뿐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노래라는 말입니다. 실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교로 노래할 때 바로 이것이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노래를 받으십니다. 또한 이 찬송이 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세상 끝 날에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하늘에서도 이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새노래를 천국의 모험인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 내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53. 창조론의 기초(4) - 땅불이 핵심

세상 어딜 가든지 어김없이 이 지구가 과거에 격변적인 홍수를 겪었다는 증거들을 보게 된다. 노아시대에 있었던 대 홍수는 인류가 보아왔던 그 어느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대격변이다. 이 격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크리스천 과학자들마저도 성경에 기록한 노아홍수를 부인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이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홍수에만 쓰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밧발'이다.

창세기 7장에는 그 밧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 날에 (모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생각해 보면 밧발 사건은 비만 온 사건이 아니라 "큰 깊음의 샘들이" "모두(all)" 터졌다고 했다. 이것은 화산활동의 의미하며 지각의 판들(earth's crustal plates)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지판들을 움직이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런 대 사건만이 현재의 지구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1. 밧발은 화석을 설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화석들은 빠른 혼탁한 물(turbid current)이 만든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 산호, 삼엽충, 물고기 등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다. 땅 위에 사는 공룡, 도마뱀, 새, 작은 동물들의 화석은 아주 적다. 이 생물들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매몰되고 다른 동물들에게 뜯어 먹히거나 썩기 전에 압력을 받아 화석이 되려면 아주 짧은 시간의 대홍수가 필요했다. 조개화석이나 물고기 화석들은 살아 있는 듯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순

간적으로 매몰되었으며, 부패하기 전에 화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상 동물 화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수중생물들의 화석만 생생하게 발견되는 이유는 바로 격변적인 밧발 사건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2. 밧발은 지층들의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암석층들은 화석이 들어있는 퇴적지층들이다. 이 지층들은 엄청난 양의 혼탁한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남긴 밧발의 침전물이다. 물이 제거되고 남겨진 침전물은 건조되고 굳어져서 바위가 되었다. 퇴적암 층이 아주 짧은 시간 만에 형성된 예는 1980년

될 수 있는 사건은 밧발(노아홍수)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3. 밧발은 산과 골짜기의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지구 표면은 평평한 곳도 있지만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 많은 산들은 지판(plate)들이 부딪힐 때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평평한 지형이 수억년을 지나면서 깎이고 깎여 산이 만들어졌다는 지형침식설은 1900년대 초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가설로 폐기된 지 이미 오래다. V자형의 골짜기는 큰물이 매우 짧은 시간에 흘러가면서 만든 지형이다. 성경은 전 지구를 덮고 있던 밧발의 물이 "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다(창8:3). 밧발에 동원된 물은 지구를 평균 2600m 정도의 두께로 덮었던 엄청난 물이었는데 이 물이 낮은 곳 즉 바다로 몰리면서 골짜기들을 만든 것이다. 산을 들어 올리거나 골짜기를 깎아내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산과 골짜기는 바로 대홍수인 밧발사건의 결과인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바다생물화석들이 발견되는 이유도 지층이 물 위로 갑자기 솟기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4. 밧발은 지판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대륙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하다. 지

면 과거에는 지판이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강한 힘이 필요했다. 지구를 재편해버린 밧발(노아홍수) 같은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 대재앙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격렬함과 규모 등은 사람들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홍수재앙으로 초기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 현재의 지구모습이 되었다.

5. 밧발은 석탄과 규화목도 설명할 수 있다.

진화론적으로 석탄형성과정을 설명할 때는 수백만 년의 긴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석탄을 만들어보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석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이 압력이고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단 몇 시간이면 된다. 과학자들은 1980년 St. Helens 화산폭발과정에서 거의 순간적으로 석탄이 되어버린 통나무들을 발견했다. 석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데 밧발사건 같은 전지구적인 격변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나무 동지만 화석이 되어 남아 있는 규화목도 밧발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6. 밧발의 의미

밧발사건은 창조 이후에 있었던 최대의 물리적인 심판사건이었다.

밧발(노아홍수)은 창조 이후 최대 물리적 심판사건 세상학자도 지층, 화석, 석탄, 캐년 모두 격변적 형성 인정



2400 m나 솟아 오른 어마어마한 지층, 캐년의 깊이, 생생하게 조상 없이 갑자기 진화 순서와 상관 없이 나타나는 화석들 ... 밧발의 단면이다

St. Helens 화산폭발에서도 볼 수 있었다. 화산 분출물이 불과 1-2년 만에 근처 계곡을 채웠는데 이때 180m이상의 퇴적층을 만들었다. 현재 육지의 약 80%는 이런 지층으로 되어있다. 또 어떤 지층은 대륙을 가로질러 연결되어있다. 이런 광활한 지역을 덮을만한 양의 흙과 이것을 운반할 물이 동원

각을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했던 맨틀도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구의 지각은 여러 개의 판(plate)으로 나뉘어있는데 대륙판도 있고 바다판도 있다. 이 판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2-16cm정도 움직여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

큰 사건 뒤에는 항상 많은 증거들이 남게 마련이다. 앞에서 열거한 증거들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 심판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지구는 사라져 버렸다(벧후3:6). 죄로 인해 파괴된 지구환경 때문에 인류의 수명은 900세에서 450세로 격감하게 되었다.

세상 학자들도 지층, 화석, 석탄, 캐년 형성 등이 모두 진화가 말하는 장구한 시간이 아니라 격변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밧발사건은, 진화역사가 사실이 아니고 성경역사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 사람이 결코 지을 수 없는 크고 분명한 증거들을 많이 남겨 두었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명품 인생 아브라함 중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무를 완전히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식구 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힘든 가운데 상속자로 지목받을 만큼 대단한 관계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키우고 장가보내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간접적이나 피부에 닿게 체험하며 아브라함의 동질의 믿음을 공유하는 복 받은 종입니다. 그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종됨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아브라함 집의 일을 돌봄을 영광스런 일생의 과업으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주군 아브라함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그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팔자타령을 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한나 사람은 주어진 환경보다는 처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외동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향으로 가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지시입니다. 내 것 하나 변변히 갖춘 것이 없다면 그 많은 재물을 얼마든지 적당히 요리해서 얼마든지 자기 호주머니도 챙기고 사용한다 해도 알 사람도 뭐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주인 아들의 아내찾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인이 원하는 이로 정확히 찾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리브가를 찾았을 때 그 많은 보물을 지참금으로 다 주고 지체함도 없이 돌아오는 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를 그토록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었을지 그의 행보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거리집니다.

엘리에셀은 종의 자리를 빛나는 명품인생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종됨을 최고의 명예로 자랑으로 여기며 자원하여 종의 자리를 명쾌히 하나님을 아는 자유인으로 빛낸 별의 인생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인에게도 최상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신의 모든 주위 사람에게도 기낼 수 있는 든든한 거목인생이 됨이 그에게 하나님의 내려주신 상이라 여겨 집니다.

비록 교회 중직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젖어서 육신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들이 넘쳐 '개독교'라 사회에서 지탄받는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살 수는 없을지? 주께서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맡겨진 작은 일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 그런 삶을 하나님은 "네 모습에서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이 보이니, 네 인생은 명품이야"라 기뻐하십니다. 그런 명품인생은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합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교회 론 도와드립니다.

(516)227-1203, revpakm@gmail.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년 가을학기 영성수련회에서 KAPC 총회장 임영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복음의 질그릇으로 사명 감당하라”

국제개혁대신대원 2013가을학기 개강 및 영성수련회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박사) 2013 가을학기 개강 및 영성수련회가 “사명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개최했다.

본교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황은영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는 학생회장 임정식 전도사의 기도, 변경진 목사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으며 임영민 목사(KAPC 총회장)가 ‘사역자의 영성관리2’(고후

4:7-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영민 목사는 “우리 앞에 끈고 한 일과 믿음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기뻐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다.

이 같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다. 세상에 얼마나 큰 불행이 일어나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메신저로 보배를 짊어짐을 받았다. 주의 종이 될 줄 그릇 같은 자들”이라 강조하며 “우리들이 질그릇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타산지적으로 삼고 우리들의 삶에서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결단하여 남은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질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첫째 날 집회는 전대준 목사(L.A.중앙노회장)의 기도, 양수철 목사(분교 이사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임영민 목사가 ‘사역자의 영성관리1’(고후6:1-10), 장학금 전담사, 분교 이사 이정현 목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조철원 KAPC 전 총회장이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Seeds Of Worship 소년소녀 찬양 동동팀

Seeds of Worship 2013 뮤지컬 정기공연 ‘THE NEXT POP STAR’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Seeds of Worship(SOW)소년소녀 찬양동동팀이 2013년도 하반기를 맞아 3년 째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하나님나라 내일의 주역들인 2세를 주축으로 구성된 SOW소년소녀 찬양동동팀이 지난 16일 감사한인

교회를 시작으로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THE NEXT POP STAR’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계적인 K-POP 스타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만든 소년소녀 기독교뮤지컬이



RS, 팜파마에서 하나님말씀을 전하는 선교팀들

홀리스에서 단기선교사로 발을 내딛다

월드쉐어, 새생명교회선교팀과 멕시코 단기선교

할렐루야멕시코 선교팀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6박7일간 멕시코 Ensenada에서 남쪽으로 3시간 떨어진 San Quintin에서 김영옥 선교사(남가주새생명교회 파송)와 함께 태권도 선교사역과 교회사역, 그리고 태권도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역을 진행했다.

할렐루야멕시코 선교팀이 다른 선교팀과 다른 것은, 그동안 다운타운 스키드로 거리에서 생활했던 사논과 알리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가주새생명교회(담임 박형준 목사)는 2012년 겨울부터 매달 두번째 주일 오후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월드쉐어 홀리스 센터를

방문해 홀리스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면서, 홀리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번 여름에 떠나게 될 멕시코 선교에 이들과 함께 가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왔다.

지난 5월에 멕시코 선교에 대해 광고를 한 후에 10여명의 홀리스들이 선교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비자와 여권 등의 문제로 많은 이들이 포기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사논(형제)과 알리나(자매)만 이번 미션에 참여 할 수가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팀들은 태권도 선교센터의 기초공사와 VBS, 영어교육, 심방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멕시코의 황량한 모래벌판위에 판자 집처럼 세워진 3칸의 초등학교에 있다. 사논은 “이 황량한 벌판위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세워져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이를 위해 자신의 홀리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못다 한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포부를 말하기도 했다.

월드쉐어의 김희기 팀장은 “수많은 홀리스들이 다양한 기술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향을 하고 있다. 이번 남가주새생명교회와 같이, 해외 선교프로그램에 홀리스들을 참여시키도록 돕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들에게는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속의 그들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쉐어는 이제 멕시코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홀리스들과 함께 놀이터를 설치하는 겨울미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실 분들은 전화 (213)435-3489(김희기)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쉐어)

금상 뉴저지갈보리교회 김주애 양 차지

필라기독교방송 청소년 복음송 경연대회 성료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개국 17주년 기념으로 제11회 청소년 복음송 경연대회(대회장 서장석 운영이사장)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켈트햄장로교회(담임 최정권 목사)에서 열린 대회는 청소년들의 복음송의 활성화를 위한 연중행사다.

이번 행사가 이남 조준 전도사와 서진진 사회로 빛과소금선교회에서 준비한 오프닝 동영상에 이어 김성철 목사(필라목사회 회장)의 기도, 대회장 서장석 장로(운영이사장)의 대회 선언에 이어 박해란 집사(영생장로교회 임마누엘 지휘자)의 4명 심사위원 소개 후 경연대회가 이어졌다.

총 8교회가 출연, 각자의 기량을 발휘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

다. 특히 비보이 그룹과 데이브박의 특별 찬양으로 청소년들의 열기를 돋우었다. 심사평에 이어 오성환 준비위원장(운영이사)의 광고 후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 김주애(뉴저지갈보리교회) △은상: 뉴저지행진교회 밴드 팀 △동상: 김한나, 김민이(몽고메리장로교회) △인기상: 김원(에베사티안교회). 이어서 인기상, 사랑상, 믿음상, 소망상, 평화상, 은혜상, 기쁨상으로 8명 모두에게 트로피가 수여됐다.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국은 “복음의 향배 생명의 소리”라는 가치에 방송선교를 하고 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국)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p>	<p>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ch.com</p>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ibc.org Tel. (718)279-2757,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주요찬양예배: 오후 8:30 (매주 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50 주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p>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2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www.nakwonchurch.org</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15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9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NCF 영어: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mk@gmail.com</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담임목사: 조웅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p> <p>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9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키운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밴앨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찬양): 오후 1:45 타악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타악예배: 오후 1:30 영문예배: 오후 1:30 영문예배: 오후 1:3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xton, MA 01748</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50</p> <p>Tel. (410)337-9448, 882-016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89(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타택: (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요찬양예배: 오전 9: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00 주요찬양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c.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요찬양예배: 오전 9: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jl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pprovision21.org www.jospprovision21.org</p> <p>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화-금)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한/영)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파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요찬양예배: 오전 9:30(EM) 주요찬양예배: 오전 10:5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1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kpcp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8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요찬양예배: 오전 9: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문예배: 오전 11:00 영문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월)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p>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오늘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영어)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임승진 담임목사위임 및 송정명 원로목사추대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함께 열려

미주평안교회 제4대 임승진 목사 위임 및 송정명 목사 원로목사 추대 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임승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그 동안 미주평안교회를 섬기셨던 송정명 목사님의 인품, 신학, 비전, 그리고 지도력을 존경하며 원로목사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버지와 스승님처럼 섬기고 싶다”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송정명 목사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 치유, 구제, 선교이다. 이 사역들을 향상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또한 미주평안교회 성도들과 달려가고 위대한 하나님나라를 꿈꿔왔다.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타셨던 나귀새끼처럼 주께서 쓰시게 감사하며 예수님만 앞장서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주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미주평안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된 송정명 목사(사진 왼쪽)와 4대 담임목사로 위임된 임승진 목사

송정명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이날 위임예배는 김영수 목사(신수동 성결교회) 기도, 연합찬양대의 찬양, 손인식 목사(베델한국교회)가 ‘이러한 기쁨’(요3:28-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집례자가 위임사약을 한 후, 위임목사를 위해 안수기도의 시간을 갖고 임 목사가 본 교회 4대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가 권면을, 차광일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축사를 했으며, 위임기념패 및 기념품 증정, 그리고 취임인사가 있었다.

임승진 목사는 성결대학교 신학대와 서울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85년 예수교성결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맥매스터 대학원을 나와 오타로버츠 대학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가족사항으로는 부인 임혜옥 사모와 수미, 선미 두 자녀가 있다.

이날 송정명 원로목사 추대식도 함께 열렸다. 추대식은 임승진 목사의 집례로 열렸으며,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회 대표)가 격려사, 유백열 장로(본 교회 원로)가 회고사를 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의 꽃다발 증정과 에드워드 비다우리(LA 카운티 정신건강국)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선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열린 송정명 목사의 회고록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기념 감사음악회는 노형건 선교사의 진행으로 시작, 전정례 권사(글로벌메시아시아성함장단 단장)의 헌정사,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의 독후감 발표, 월드미션중앙단과 프레이즈밴드의 중창, 미주평안교회 연합찬양대의 합창,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 노형건 선교사 독창, 글로벌메시아시아성함장단의 합창, 그리고 송정명 목사의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든 순서는 임승진 목사(동양선교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실업인선교회 전문인 무료상담 행사에서 이경희 변호사가 오바마 이민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안은 모두에게 혜택” 은혜실업인선교회, 법률/이민법/건보개혁안 등 무료상담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이동양 장로)가 주최한 전문인 무료상담 행사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바마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강의를 한 이경희 변호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있다”고 말하며 “공화당의 입장은 국경을 강화해 밀입국에 대해 철저히 봉쇄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경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가 의문”이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하원에서 아직 어떤 안건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9월 중순쯤 하원이 속개된다. 그래서 현재 이민자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이민법개정은 공화당의 입장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바마 이민법 개혁안이 불법체류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민법 개혁안은 불체자들뿐만 아

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자들을 위해서도 마련된 법안”이라 설명하고 “이민개혁법안은 가족에게 할당됐던 부분 중 일정부분이 취업 이민자들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해마다 14만개의 취업이민쿼터가 영주권신청자의 경우 그 가족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개혁법안에는 영주권신청자만 카운트가 된다. 또한 이 공계열 석, 박사들을 비롯한 우수인력들과 주재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4만개의 취업이민쿼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새로운 이민법이 언제 통과가 되느냐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새 법안이 발효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류 등 준비를 잘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상담행사는 이원석 변호사가 ‘법률’, 조신천 집사(조선천보통제정 대표)가 ‘오바마 건보보험’, 오하이다 권사(조이에스크로 매니저)가 ‘에스크로’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사이어티 제57차 소망정기교육세미나 UCI, UCLA 시신기증 담당관 강의

소망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제57차 정기 교육세미나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나성동선교회(담임 한기형 감독)에서 열렸다.

이날 시신기증에 대해 마크 부룩스 UC얼바인(UCI) 시신기증 프로그램 사무국장과 트레비스 시웬스 UCLA 시신기증 프로그램 디렉터가 강사로 나서 기증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마크 부룩스 사무국장은 “시신기증은 기부문화의 모순 중 하나다. UCI는 2011년도에 시신 174구를 기부 받았다. 그중 67%가 본인이나 미리 기증신청을 한 것이며 33%는 가족들이 한 것이다. 시신기증은 본인이 기증해도 되고 가족들이 기증해도 된다”고 말했다.

부룩스 사무국장은 “시신기증은 만18세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UCI에 기증된 시신 중 75%는 수술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24%는 학생들의 해부학 공부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1%는 B형간염과 C형간염 그리고 에이즈 등에 걸린 시신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화장하고 바다에 뿌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룩스 사무국장은 “시신기증자 중 아시아인은 5년

전에는 2-3명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350명 이상이 기증서명을 했다”고 밝히며 “시신기증 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대부분 대졸자로 고학력자가 많다”고 말했다.

트레비스 시웬스 디렉터는 “UCLA는 UCI와 달리 시신기증을 사망이전에 신청한 자들에 한해서만 받는다. 사망 후에는 시신의 유형이 다양하기에 UCLA가 지정한 유형에 적합한 시신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UCLA와 UCI 모두 기증된 시신은 5년간 해부학용으로 사용되며, 사용된 후 화장하게 된다. 또한 기증자를 기념하기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를 1년에 한차례 거행한다. 두 학교에 시신기증을 원하는 자들은 학교에 마련된 시신기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유분자 이사장은 “시신기증은 존엄하고 보람있는 일이며 한인사회에 뜻있는 사업 중 하나”며 “시신기증은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신기증에 대한 문의는 소망사이어티 (562)977-4580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OCYC 제23기 합창단 모집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OCYC 단장 노성혜)이 제23기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OCYC는 지난 23년간 한인 2세들에게 선교 뮤지컬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심어왔다.
▲문의: (323)936-2567

새찬양교회 이준수 목사 간증과 찬양집회

새찬양교회(담임 변윤선 목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준수 목사(남가주말일선교단 사역자) 간증과 찬양집회를 9월 8일(주) 오전 11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는 찬양사역자 마가렛이 자매가 함께 출연한다.
▲문의: (714)826-0100, 944-9377



갯스비전교회, 사우스베이사람의교회, 사랑나눔교회, 소리엘교회 등 4개 교회연합 청소년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주제 4개 교회 연합 제2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갯스비전교회(담임 임금빈 목사), 사우스베이사람의교회(담임 고통화 목사), 사랑나눔교회(담임 박순호 목사), 소리엘교회(담임 박두현 목사) 등 4개의 교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소망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수련회는 다니엘 뉴만 목사(아주사피사피대학교 한국어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를 강사로 청소년들이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눴다.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동성애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규모가 적어 학생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연합을 통한 학생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사제공: 갯스비전교회>



소망사이어티의 제57차 정기교육세미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미주 합동 총회 인준



미주 총회 대학교 · 신학대학원 학생모집

학교소개

1. 본교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이어가는 본교는 1976년에 미정부에 인가와 BPPE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신학대학교입니다.
2. 본 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합동 총회 인준 신학교이며 총회 강도사교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교 총장님은 설립 제 1회(1979년) 졸업생을 배출한 본 교의 역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 타교단 출신 목사님은 본 교에서 특별 교육 후 편목이 가능합니다.
5. 신입생, 편입생 받습니다.
6.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입학 서류

- ◆ 제출서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앙 고백서, 사진 2매
- ◆ 개강일시: 2013년 9월 9일(월)저녁 7시
- ◆ 개강예배: 본교 예배실

모집학과

학위과정	수업년한	졸업학점	지원자격
신학사(B.Th)	4년	120	고등학교 졸업
기독교 교육학 석사(M.Edu)	2년	63	4년제 대학졸업
목회학과(M.Div)	3년	96	4년제 대학졸업
신학석사(Th.M)	2년	32	M.Div 졸업자
목회학 박사	2년	32	M.Div 졸업자

- 여성 목회학과(2년제): 고졸이상 세례교인
- 평신도 신학과(2년제):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는 세례교인

Chong Hoe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in USA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22-3913/ (213)595-3912(24시간) FAX (213)386-2890

총장 정고영 박사

동성에 특대위 구성 총력대응 나섰다

국회-국가조찬기도회·의회선교연합 등 교계 5단체

국회조찬기도회(대표 황우여 장로) 등 5개 교계단체가 힘을 모아 동성에 문제에 대한 본격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대학가에 동성에 서클이 늘어나는 등 동성에 문화가 확산되고 차별금지법 입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조찬기도회와 의회선교연합(대표 김영진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세계성서화 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등 5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서 '교계 지도자 초청 한국교회 당면 현안보고 및 기도회'를 갖고 '한국교계 교과서·동성에 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동성에 옹호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과 동성에 차별금지·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한국교회 현안 보고회 및 기도회를 열어 동성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다음 달 열리는 주요교단 총회에서 동성에 옹호 교과서 수정과 기독교학교 건학이념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위 상임대표에는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에는 황우여 김명규 전 용태 장로가 선임됐다. 동성에 교과서 대책본부장은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가, 동성에·동성혼 대책본부장은 김원평 부산대 교수가 맡았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각각 수정하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독교 학교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길 교수는 "인권위는 2003년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를 제작·배포했고, 2006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국무총리에 건의했

예장통합 총회 앞두고 이색 현의안 만발

핵·통일 등 시대적 변화 반영

다음 달 열리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자살과 원전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의 목사) 현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동노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과 관련, 교단 차원에서 신학·목회적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청원했다. 강원동노회장 박홍길 목사는 제안 설명에서 "자살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자살과 구원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현제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뤄지기에 자살은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신학적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강원동노회는 또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핵에 대한 신학·성서적인 연구를 통해 교단 및 교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현의안도 제출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현의안도 눈에 띈다. 용천노회 등 2곳은 "총회 부서인 '남북한선교동일위원회' 명칭을 '통일선교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용천노회장 김동부 목사는 "국가적으로도 통일부를 두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교단차원에서도 북한선교와 통일 이슈를 대비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예장통합교단은 1970년 제55회 총회에서 '북한선교회'를 설치한 이래 '북한선도대책위원회(1973년)', '남북한선교협력위원회(1991년)'에 이어 1996년 제81회 총회 때 '남북한선교동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서울북노회장 문원순 목사는 찬송가에 애국가를 수록해달라고 청원했다. 문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며 "애국가를 찬송가에 수록하면 국가 기념주일에 예배나 교회 등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의위에 올라온 동일안건 중 가장 많은 현의안은 현행 '군·농어촌선교부'를 군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로 분리해달라는 안으로 총회노회와 진주노회, 포항노회 등 9개 노회가 제출했다. '목회대물림금지법안'도 서울노회를 비롯해 경기노회, 대전노회, 평양노회, 대구동남노회 등 7개 노회로부터 올라와 있다.

기성, 성결성 회복운동 본격 추진

"정직한 보고가 기본" 교회재정·교인수 보고 강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교단 소속 교회의 경상비(연간 헌금 총액) 및 세례교인 보고실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결성 회복 운동'의 일환이다. 기성은 성결성 회복을 위해서 '정직한 보고'가 기본이라고 보고 '정직 보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결성 회복은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

미다. 이 때문에 기성의 역대 총회장들은 성결성 회복을 취임 일성으로 내댜지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조일재 현 총회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성결성을 회복하겠다"고 천명한 뒤 이같은 선언이 구호로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기성은 먼저 2012년도 경상비와 세례 교인 통계를 감사해 허위보고가 의심되는 지방회와 교회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세례교인 300

명 이상인 교회 중 1인당 경상비가 턱없이 낮은 교회를 집중 감사한다. 1인당 평균 경상비 70여만원보다 턱없이 낮으면 교인 수를 부풀렸거나 총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비를 적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는 또 경상비와 세례 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총회비 미납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총회비를 미납한 13개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목회신학연구원과 함께 지방 신학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성은 '2·3·4 부흥운동'도 시작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

씩 성경 읽고 4시간씩 전도하자'는 운동이다. 조 총회장은 "2·3·4 부흥운동은 작은 교회의 자립과 부흥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목회하는 회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비를 적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는 또 경상비와 세례 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총회비 미납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총회비를 미납한 13개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목회신학연구원과 함께 지방 신학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성은 '2·3·4 부흥운동'도 시작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

WCC 김삼환 목사 사퇴 강력촉구 집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사탄의 회 WCC" 주장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산하 WCC대책위원회(위원장 지양철 목사)가 10월 30일부터 11월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한국총회 개최 반대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인다.

WCC대책위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심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한 WCC 부산총회 철회 및 김삼환 대 표회장 사퇴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보수교단협의회는 WCC총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김삼환 목사의 대외장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CC대책위는 그동안 김삼환 한국총회 상임준비위원장(대회장)이 답임목사인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인근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WCC 한국총회 개최 철회와 김 목사의 대외장 사퇴, 교계 2선 퇴진을 요구해왔다.

WCC대책위는 김 목사에 대해 "지난 2일 '주의 몸된 교회'로서는 용납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초흔제라는 무당 국판을 총회 석상에서 자행하고서도 회개가 없는 WCC 총회를 부산으로 유치, 개최하는 것이 교회

목사로서 타당한 것인지',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어서 타 종교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포함, WCC의 문제점에 대한 7개항에 걸친 공개질의를 하면서 22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답변이 없을 경우 김 목사가 WCC와 같은 노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표했으니 답변이 없었다"면서 "김 목사는 성경의 정설에 반한 이설을 주장하고 역행하는 WCC를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단체로 옹호했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적인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도 못했다. 김 목사는 WCC 한국총회 개최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며 거짓을 미화, 옹호 선전해 한국 교회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WCC대책위는 9월 초 명성교회 근처에서 또 다시 집회를 여는 등 앞으로도 김 목사의 WCC한국총회 준비위 대표회장 사퇴와 교계 2선 퇴진, WCC한국총회 개최 철회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1만5000여 감리교 청년들 "110년전 부흥역사 다시 한번"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

평양대부흥운동의 불길을 당긴 하디 선교사의 회개 110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주최한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뜨거워 열기 속에 열렸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대회에는 1만 5000여명이 자리를 매웠다. 'Promise(약속)' 'Presence(임재)' 'Participation(헌신)'이라고 파란색으로 쓴 흰색 반팔 티셔츠를 맞춰 입은 청년들은 4시간여 동안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다.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기리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 7000인이 되어 한다"면서 대회를 시작했다.

'약속'을 주제로 한 1부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 눈으로 골리앗과 마주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임재'를 주제로 한 2부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국인을 무시했던 교만함을 회개한 하디 선교사처럼 진정 성령을 사모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라며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헌신'을 주제로 한 3부에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하디 선교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기대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며 "복음을 지식

으로 알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인 '소망'에서 청년대회 단장 김정석 광림교회 목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민대 CCC 소속의 안병용(26)씨는 "하나님을 지극껏 깊이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다"며 "개인적 구원을 넘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임득균(24·부평감리교회)씨는 "다시 한 번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성도들과 한국CCC 등 대학생선교단체 회원들도 함께했다. 기감은 지난 1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 성회를 열어 5년여 간의 교단 내 갈등을 딛고 일어서 새 부흥을 이루자고 결의했다.

총신대 새 총장 선출 무산

총신대 새 총장 선출이 무산됐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뒤 다시 총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22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지만 새 총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총신대 재단이사와 운영이사들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정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총신대 교수와 목사가 후보로 거론됐지만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및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100	\$110	\$190	\$190	\$190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_____, 영 어: _____, 목 사 , 평 신 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선교 펴기

영국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 영국에서 평안의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유럽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보고와 업무 협의를 위해 9월1일-24일 일시 귀국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예배, 기도회, 선교회 모임에서 초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은 이메일이나 국내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hckim1@hanmail.net 전화 011-9088-8585.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며 더 많은 기도 요청 드립니다.

제27기(2012/13) 암노스교회 개척학교 사역 작년 9월28일 제1기(2011/12) 졸업자 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신입생 5명이 3학기 강의를 20여명의 초빙강사들의 자비량 헌신으로 7월 11일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4학기(7-9월)는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 목회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제3기 학생모집 2013/14 신입생 모집 20명을 기도하면서 10명 지원자 면접을 가졌고 9월말까지 계속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지역교회와의 연합사역

브렌트우드 지역의 42교회와 단체들의 정기모임과 연합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INTERCEDE" 매월 정기 기도회로 BBC 교회당에서 암노스 주관 하에 모여 영국/유럽 국가와 교회, 재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합심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암노스가 주관하는 지역교회 연합 사경회 (INSPIRATION 2013)가 5월3일부터 6일까지 필립 린 목사(말레시아 skyline Church 담임/현직의사)를 주강사로 열었습니다. 이 기간 이태리 밀란의 한인 성악가 5명이 특별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 제1회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영국교회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선교지 영국을 답사)에 9명(한국, 미국, 호주)이 참석하여 실시되었습니다.

- "ON THE MOVE"는 지역 교회연합으로 7월10-13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햄버거를 나누며 전도를 실시하여 19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 "THE WAY FESTIVAL" 지역연합 전도집회 (www.thewayfestival.com)가 "한 교회, 한 복음, 한 비전" 주제로 8월 23일부터 9월1일까지 TBC교회 뜰에 1500명 수용 텐트를 준비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김주경/양천근 선교사) 10만장의 홍보 전단지 배포하는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12명이 결신자를 얻었고 매일 은혜 중 진행합니다.

- "24/7 기도회" 지역교회연합으로 시내 중심에 기도실을 마련하여 연속 기도를 영국/유럽 나라와 지역 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Passion Conference" 전도를 위한 훈련을 2012년 2월 16일 교회연합으로 실시하였습니

다.

방문 전도 암노스 전도 정기훈련으로 매주 토요일에 학생과 교직원 함께 Hutton지역을 축조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역

- 한인교회, GMS 영국지부 방문 및 설교
- 제28회 미주크리스천신문 주관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강의 및 답사 안내(2013/4/13-18)

- 결혼식 주례(안동주, 윤정근 선교사 장녀/스페인 산탄더 2013/6/28-30)

- 프랑스 한인교회와 사역자 방문, 선교보고와 협의(2013/7/26-31)

- 제18회 재영총신동문 가족수련회 특강(2011 영국 인구조사를 통해 본 선교지 영국, 2013/8/6-9)

기도 요청

1. 영국/유럽교회 부흥과 영적 개혁
2. 교세 감소를 반전할 전략과 실행
3. 적극적인 연합 전도 실시
4. 약화된 신학교와 무목교회 사역자
5.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의 활성화
6.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 개척운동
7. 사회에 기독교 영향 확대
8. 암노스의 교회 개척과 협력 사역의 확대
9. 순회선교사의 구체적 사역 계획, 역할과 활동 확대

GMS 순회선교사 김주경, 양천근 선교사

케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11:11).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 위와 가정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세월은 너무 빨라서 벌써 8월에 와 있습니다. 안식년을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곳 버팔로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려합니다.

케냐 소식 "알카에다"라는 테러집단의 테러 15년이 되던 날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대형 화재가 8월 7일 오전 4시 30분쯤 발생하여 국제선 도착장이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에 많이 손실된 상태입니다. 케냐 정부는 교통부 중심도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도착과 출발은 일단 8월 12시를 기해 국내선 3번 터미널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을 보수,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상적으로 공항이 운영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소식 마상가 신학교는 지난 5월 2013-2014년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학생들이 들어와 공부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정의를 훈련할 수 있었던 좋았습니다. 아직도 교장은 공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로서는 교장에게 주는 월급을 주지 않고(선교사는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쓰고, 외국으로부터 학교를 위한 후원금을 모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선생들보다 학력이 높고 외국인인 저를 교장으로 쓰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안식년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 교장을 맡기시려거든 파송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지만(케냐에서 20년을 사역하였지만 파송교회 없이 후원교회들의 후원으로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파송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 신학교 이사장으로 부터 국제전화를 받았는데 아직도 제가 교장직을 맡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소식 케냐에 도착하면 나이로비에서 며칠 일을 보고 마상가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강의와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체 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건축이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소식 가족은 모두 건강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지혜와 미혜는 21일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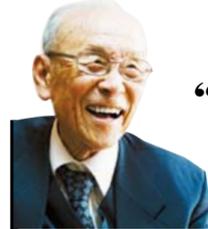
저희들은 이곳 버팔로에서 26일 비행기를 타고 케냐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아내와 둘이서만 가게 되어 조촐합니다. 신학교 20에이커, 신

학교 바로 옆의 교회 110에이커, 그리고 길 하나 건너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120에이커에 교장 집 하나와 우리 집 밖에 없는 곳에 단 둘만이 있으니 너무 조용하고 외롭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보다 더 할 것을 사모합니다.

제 학년보다 나이가 어린 미혜가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밑에 의하면,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의 3%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은 지키기가 어렵지만 잘 신앙을 지키고 믿음생활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후에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쓰여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상가 신학교를 위해 -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도록, 신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을 위해서
 - 진행 중인 유치원, 유치원 교사대학, 현지 인종교 훈련대학이 준비가 잘되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 원활한 사역을 위한 4륜구동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게 될 인혜, 지혜, 미혜를 위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들 예능이를 위해
 - 가족의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 위와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이우호), 이애경 드립니다.
▲이메일: isaiah.lee@aimint.net



방지일 칼럼 (5) "본대로 들은 대로" 목사의 번복

목사가 자기 의지를 굳게 하여 한번 작정했을 때는 번복해서는 안된다. 신의에 관계됨은 물론 그 목회역사에 벌써 실패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교회사무를 자기 역량대로 안 되든지 또 그 필요성에 있어 사임하려면 심사숙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재가를 얻어 발표해야 한다. 더욱 정년이 안됐으나 후임을 위하여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퇴임한다 했다면 기여하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목사로서 번복은 있을 수 없다. 인정에 끌려서 대다수의 교인이 이렇게 아우성이나 하고 번복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지나보는 대로 한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남이 그 교회로나 자신으로나 적기가 되었다. 나도 그 인사에 동감했다. 다른 교회에 소개하여 다 결정되었다. 본 교회에도 당회원들은 양해가 되었다. 이사할 날까지 작정되었다.

갈 교회에선 목사를 떠나려 왔다. 트럭에 짐까지 실었다. 그런데 여 교인들이 양원되어 차에 타려 아예 누웠다. 목사는 이렇게 만류하는데 이 양들을 버릴 수 없다고 번복했다. 농성하는 교인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모시려던 교회에선 목사의 의지가 그렇게 번복을 하더니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번복한 대로 전 교회에 남았다. 그러나 반년이 못되어 떠나게 됨을 보았다.

자동차 바퀴의 바퀴가 빠진 목회는 못한다. 많은 교인 상대에 어찌 잡는 교인이 없리오, 목사가 가신다니 시원하다고 보낸다면 그 모양새는 더욱 안됐다.

인정상 어렵기도 했지만 한번 의지를 정했을 때는 그대로 하여야 한다. 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떠남이 더 유익한 것이다.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떠날 때 떠난다고 보던 교회가 내가 떠남으로 분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번복하면 내 신의는 벌써 무색한 고로 단에 설 때 힘이 없어진다.

이런 실례는 너무 많이 본다. 내 일할 목장은 옮겨서 새롭게 함이 더 힘이 나게 되지만 인정에 못 이겨 그 의지를 바꾸었을 때 누구도 알지 못하되 그 자신이 무력해짐을 자신이 느낄 것이다. 목회자는 인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격이란 이성적이면서 의지적에 정서를 가함이다. 정에 못 이겨 의지를 꺾었을 때 격의 완전성을 상실함이라, 비 인격이라 하겠으니 목회에 힘이 날 수가 없다.

근자에 어떤 교회에 오래 목회하면서 좀 서로 싫증이 나는 듯 하니 나는 언제 은퇴하겠다는 공언을 한 교역자가 있었다. 건강도 좋고 은퇴하고 지날 것을 생각하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년까지 있겠다고 번복하려는 눈치를 찬 교회는 아예 그 번복을 막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하게 됨도 보았다. 좀 창피한 일이다. 함부로 의지를 번복해서는 격의 손실이다. 무색하게 물러남보다 빛나게 물러나고 은퇴하시게 하는 게 교회나 목회자의 덕이 나타난다.

한 60여년 교회에서 내 생을 보낸 나로서 많이 지나보면서 목사는 번복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본고로 한 기록에 남겨둔다.

의지를 굳혀 하나님의 재가까지 반사 그 의지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한 의지는 번복할 수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형편상 번복한다면 이는 안 된다. 정지하는 사람은 번복을 순바닥 뒤집듯 함을 본다. 얼마나 비천하게 여겨지는지 모른다.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 자사 자리를 위함이라 역시 비천함을 면치 못한다. 소위 민족의 지도자 운운하면서 그런 번복은 자라나는 학도들을 망치는 일이다. 그 책임을 언제나 한번 묻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성직자로서 그런 유에 속한다면 이는 크게 실격이라 감히 번복하지 못한다. 번복한 후에도 뻔한 일인데 후고 후에 후회해도 벌써 늦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성직자로서 신의를 상실한다면 벌써 그 격은 잃은 것이다. 하수 없이 교회가 깨지지 않기 위한 미명도 붙여 본다. 그러나 내가 떠난다고 깨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있어 함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주관일 뿐이다.

신의를 상실하는 번복은 있을 수 없다 함을 짚어본다. (1996년, 1권)

<p>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감사헌교회</p>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나성서부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45(월-토) 오전 6:00(토)</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정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5:30 EMJ 대안회: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J): 오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EMJ 대안회: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남가주리더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화-토)</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목요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양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10</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후 6:00 금요예배: 저녁 7:30</p>	<p>등문교회</p> <p>담임목사: 박형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7세계를 뚫어주는 우리의 중추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드림교회</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삼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비전(18세까지):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새천안교회</p> <p>담임목사: 변운선</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미주영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미주 평안교회</p> <p>담임목사: 송정명</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브리지교회</p> <p>담임목사: 장세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새생명선교회</p> <p>담임목사: 김만수</p> <p>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4: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안디옥장로교회</p> <p>담임목사: 지윤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8:00</p>	<p>얼바인침체교회</p> <p>담임목사: 한중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월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염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물음인혜: 오후 6:00</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물음인혜: 오후 2:40(안-토)</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수요찬양: 오후 7:30</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이준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수요찬양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 오후 7:30</p>	<p>코너스톤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 펴기

노숙인 사역

꿈을 찾고 만들어가는 곳
2011년 4월에 시작된 드림시티. 1층에서 시작된 사역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주간에 400-500명이 이용하고 매일 40-50명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드림시티에서 머무는 식구들을 위하여 식사 시설을 개선하고 1일 3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만 느껴졌던 서비스들... 이발, 세탁, 물품보관, 잡자리제공, 전화, 팩스, 컴퓨터(인터넷), 영화상영, 양방 및 한방진료, 증명사진, 급식, 미술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 관심과 함께 기도도, 그리고 물질로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올해 안에 노숙인과 불법외국인 체류자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진료소(의원)를 설립하고자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꿈을 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밝게 웃는 세상, 우리의 관심과 나눔을 통하여 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일 3식 제공
2011년 4월 세워지고 8월부터 24시간 오픈을 하며 밤에 잡자리를 이용하는 사람(10-20명)들에게 라면이나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매일 저녁밥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던 식사가 지난 6월부터는 잡자리를 이용하는 40-50명에게 매일 3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용산 푸드뱅크를 통하여 들어오는 음식과 인근 사역자들이 제공한 식재료들과 함께 필요한 일부 음식은 구입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지도
드림시티에선 수많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화, 팩스, 컴퓨터(인터넷), 세탁 물품보관, 영화상영, 증명사진촬영, 양방/한방무료진료, 이력서작성, 면도기와 칫솔, 이쑤시개, 면봉까지 제공합니다. 모두 무료로 노숙인들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위생 그리고 재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5월 계획했던 미술지도가 드디어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원 작가님께서 이 일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자외선소독기를 갖추고 병장시설을 확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림시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낮에는 400-500명, 야간에는 40-50명이 잡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잡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에는 드림시티를 방문하는 외부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130명 정도에게 빵과 음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리안스베이글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명으로 시작한 미술지도...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려지면 더 많은 노숙인들이 그림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림 모임을 통하여 삶을 나누는 사람... 다양한 사람의 모임으로 시작한 이 모임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거리를 찾습니다
드림시티에 머무는 분들은 술을 먹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드림시티에 머무는 40-50명 중 반 이상은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있는 분들은 드림시티 내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실시했던 봉투작업 부업은 소득이 너무 적아 다른 부업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혹은 좋은 부업거리가 연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재화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노숙인의 수는 14,000명 전국민대비 0.03%정도만 조만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실제 노숙인 수는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나 사회가 외면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거나, 굶기면 일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보입니다. 하지만

에 처한 이들을 돌보며 이 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소중하게 전하겠습니다.

늘 기도도, 관심으로, 물질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ww.dreamcity.or.kr

드림시티의 재정 및 운영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날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식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만 드림시티 재정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시티는 교회로 등록되어 정부의 후원 없이 어려운 분들을 향한 귀한 분들의 관심과 후원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사용하던 컴퓨터, 책이나 생활용품 및 옷, 신발, 가방 그리고 식품 등 모든 물품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물품이나 음식은 타 교회나 기관의 노숙인 급식 혹은 무료 급식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신당동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장학일 목사님) 그리고 인천의 그리스도의향기교회(유경하 목사님)의 노인 무료급식에 사용하도록 쌀 250키로와 라면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함께 물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연식 선교사 드림

이메일: plusup63@hotmail.com

구분	한국	미국
노숙인수	14,000명 (1만명당 3.5명)	3,000,000명 (인구1만명당 100명)
남녀분포	남 95.6% / 여 4.4%	남 70% / 여 30%
나이	평균 47세(40대36%)	평균 40세
만성노숙인	30% 정도	10-25% 정도

들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수리나 정비 등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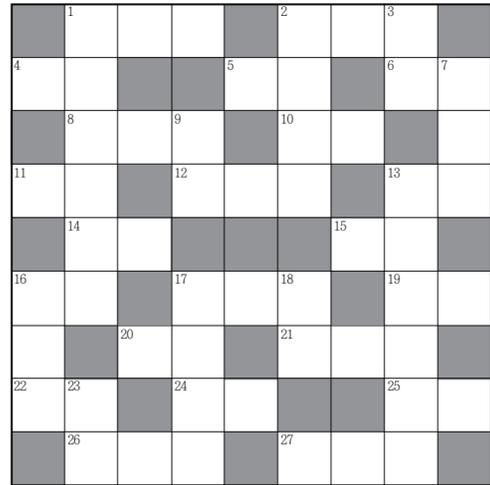
노숙인 실태
많은 분들은 노숙인이라고 하면 게을러서 그렇다거나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드림시티에 머무는 대부분의 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에서 한번 실패를 겪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

그들을 방치할 경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범죄나 질병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사회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그들을 적정한 선에서 돌보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사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쟁에서 낙오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십자말 • Cross Word (8)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 14km에 위치(수13:3).
- 주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저희가 불신함으로 크게 책망하심(마11:21).
- 므낫세의 자손(민32:42).
- 땅이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무서운 현상(왕상19:11).
- 핏줄을 이어받은 먼 조상(창46:34).
- 유대의 남방 드고아 근처에 있는 골짜기(대하20:26).
- 살피어 단속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출1:11).
-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신1:31).
- 갈릴리와 다메섹 사이에 있는 작은 도. 분봉왕 빌립이 치리했다(눅3:1).
-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인데 발람의 고향이다(민22:5).
- 세일의 다섯째 아들(대상1:38).
- '높인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시편에만도 70여회 사용됐다(시3:2).
- 예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신 열 두 제자(마10:2).
-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수입의 10분의1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일(민18:21).
- 떨어져 흩어짐. 남북 OO가족 파위(사11:12).
- 남자의 여자 형제(창4:22).
-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 이곳에 기향해 에베소 장로를 청해 권면함(행20:17).

<세로 푸는 열쇠>

-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본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비용을 가지고 갔던 사람(빌4:18).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고사성어).
- 새롭고 산뜻함(시92:10).
- 자질구레하고 둥근 돌. 돌자갈(애3:16).
-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다윗의 물뿔대에 맞아 죽자 그 군대가 이곳으로 도망침(삼상17:52).
- 빌라도가 국사를 돌보던 관청의 뜰 이름(막15:16).
-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선물(사1:23).
- 이스라엘 열 두 아들들의 종족대로 갈라진 파(창49:28).
- 몹시 뻑뻑함(시122:3).
- 잘못이나 허물(대하33:19).
-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창31:37).
- 사람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눅21:35).
- 기브아인인데 다윗의 30용사 중 잇대의 부친(삼하23:29).
- 지나치게 격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 온건파의 반대.
- 이달리 남단 시실리섬 대안에 있는 한 섬(행28:13).

십자말 정답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v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지사 워싱턴DC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7. 사모의 영성 가꾸기(4)

사모의 기도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모와 기도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생활을 위해서는:

1.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릅니다.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하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지 않아도 될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점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아들이 띠를 달라하면 둘을 줄 아버지가 어디있나 하시면서 안타깝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모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하는 권세 누리야

들이라면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려움이 닥치게 되거나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하여 성도들이 사모를 괴롭히기라도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떠나고 만 것처럼 충격을 받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아 심하면 불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말로는 아버지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모들의 고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사모들의 아버지는 더 강하고 힘이 있어 모든 것을 헤쳐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사모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능동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에 의심이 생겨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처음 말씀이 나는 능동한 하나님이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창17:1)고 하십니다.

그 능동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능동하 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도 보통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입니다. 그 분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소리를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고는 건널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사모들 중에는 각종 유형이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부름에 응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성장과정도 다르고 섬기는 대상도 다릅니다. 다 같은 목사 남편이지만 각각 상황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한국초대교회 시절에 사모는 무조건 이래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형태도 다르고 사모들의 은사가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늘 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편목사들의 시야도 많이 넓어져서 사모를 교회 안에 가둬두지 않고 은사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목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모의 위치를 확립해주어 나름대로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현명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모들이 숨을 맘대로 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모들의 은사가 개발되어 활동하므로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모들의 약점이 드러나기만 하면 기회를 타서 마귀는 엄습해옵니다. 네가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그런 것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도 잘났다고... 남편의 허물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런 성도 하나 품지 못하면서 무슨 사모라고? 마귀는 실재없이 사모들의 기도 힘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임박 아예 조금이라도 오르내리기라도 하면 그동안 그렇게도 담대하고 당당하던 사모의 자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사모는 아니야 하면서 사명까지 내려 놓게도 됩니다.

여기에 남편목사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해도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야" 하면서 힘을 돌아주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 아무게 목사사모 좀 봐. 당신은 옳되려 기도나 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 탓만 하고 그래" 하는 남편이라면 당장 사모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또 사모들이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가 묻는다면 성

도들이 목사님을 향해 불평을 해올 때입니다. 고칠 수 없는 남편의 약점이 드러날 때 사모들은 남편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주일 전 토요일부터 남편에게 일러줍니다. "여보, 내일은 정말 조심하세요. 설교할 때 한쪽만 눈을 돌리자 마세요. 아무게 성도가 오해하고 있잖아?" 등등. 그러나 남편들은 조금은 흥내 내다가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때 사모들은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기 힘들어 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성도들이 불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들의 결과를 바라본 후에 잘되면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힘이 생깁니다. 반면에 실수라도 하면 귀가 폭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면서 아들의 권세를 말도 꺼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모들이 이 범주에서 사역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와 단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바로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아들은 아버지를 알긴 했지만 집을 나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한 일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 다시금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을 보고 샅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줄 착각했던 맏아들은 기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여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권세 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치르고 얻은 아들의 권세를 많이 누리고 사용하는 사모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모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아! 행복한 사모들의 즐거움어..."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예수님의 약속2-너희가 알리라(요14:19-2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certain knowledge of Jesus Christ)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 즉 "나사렛 예수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은 좋은 스승, 친구, 이웃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만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롬1:40).

화 예수님의 약속3-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19-24)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벽히 계시된(full revelation)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21).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체가 주는 감각을 통해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각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영적 환경에 빠져 예수님을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 예수님의 약속4-그와 함께 하리라(요14:19-24)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제자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23).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각 사람에 내주하시는(Indwelling)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with)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51:11)라고 기도한 것은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

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함께(with) 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제자들 안에(in)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심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1-확실한 지식의 획득(요14:25-26)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교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할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잠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confused men).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께서 감람을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하신 것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사가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확실한 지식의 획득은 오직 교사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금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2-하나님의 가르침의 열망(요14:25-26)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셨다는 삼위의 하나님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빈곤한 제자들을 향해 미련하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친히 제자들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완벽한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토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3-기억케 하심(요14:25-26)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은 기억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억케 하시는 사역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사33:11). 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오늘날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최종으로 견인하신다는 진리들은 전혀 새로운 진리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억(memorance)속으로 낡은 진리들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케 하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6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양육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곡광역시 북구 교문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양육: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예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967(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 2회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강동3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 622-3 (158-053)	새이문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 오후 7:30 (절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양육회: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37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예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마산회원동 415 www.yang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양육기도회: 오후 9:30 Tel. (8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099-1(140-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렘미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 수, 금) 금요양육: 새벽 7:00,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Brásili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저녁 7:00 주일4부예배: 저녁 9:00 주일5부예배: 저녁 11:4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 목, 금, 토요일: 오후 7:40 금요일예배: 오전 9:30(주일) Tel.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무네시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비극의 땅 시리아

1)정부군의 민간인 대상 화학무기 공격

CNN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 측은 21일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정부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사망한 어린이들 (Reuters)

구타 지역에 유독 화학물질 로켓 공격을 가해 13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1998년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쿠르드족 학살 이후, 최악의 화학 무기 사용 실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누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미국 등 서방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으로 규정된 화학무기 사용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시리아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파올로 달오글리오(사진: Reuters)

2)사라진 예수회 사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반대해 왔던 달오글리오 신부가 지난 7월 29일 라카에서 실종됐다. 그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 그룹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달오글리오 신부는 약 30년간 시리아를 섬겨오다 2012년 추방됐지만 국경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지난 달 터키로부터 시리아로 재입국했다. 그는 특별히 쿠르드족과 아랍인들의 종교적, 인종적 화해를 주창해왔다. 또한 종파 전쟁

을 부추기는 아사드 대통령을 폭력배로 부르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 두 명의 성직자가 실종된 적이 있어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지 가늠해 보게 된다. UN도 시리아의 기독교계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는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기독교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납치된 기독교계 주민들의 숫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이집트

1)이슬람주의자들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집트 교회

현재 무르시의 무슬림 형제단이 이끄는 이슬람주의자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모인 캠프 두 곳을 공격한 이후 발생한 양측의 유혈 충돌 직후,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틱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무슬림 형제단의 보복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군부의 무르시 축출 지지 등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과 함께 약 60건 가량의 방화를 저질렀다. (사진: 공격당한 학교와 교회/출처:AP)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이 다수인 이집트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한층 대담해졌고 공격 또한 증가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무르시 대통령이 물러난 7월3일 이래로 계속 공격을 받아왔다.

2)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체포와 무바라크 석방 결정



정부의 지도부 체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인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 (Voice of America)

이집트 과도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대변인과 이슬람교 성직자들을 체포했다. 이집트 당국은 무슬림형제단의 정신적 지도자 무함마드 바디에(70) 의장을 20



석방 후 군병원으로 옮겨지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 (USA today)

일 카이로 북부 나스르시티의 아파트에서 체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바디에 의장이 체포되자 무함마드 에자트 부의장을 임시 의장으로 지명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카이로 법원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법원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무바라크는 22일 석방되어 마야디 군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연금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바라크 축출을 주도한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신자보호목적'이란 명분으로 성당 앞에 줄지어 늘어진 이집트 무슬림들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대성당 앞을 진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진은 이집트의 한 성당 앞 풍경이다. 무슬림 남성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과 예배처인 성당의 파괴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예배의 자유 박탈과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일과 유사한 것이다.

해당 사진은 예수회 신부인 제임스 마틴이 촬영한 것이다. 그는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즉시 600만 이상 리트윗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유저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집트의 종교적 박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반무슬림 폭력저지 실패한 미얀마 정부

미얀마의 개혁 정부가 종교 폭동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6월 라킨주에서 일어난 소수 민족인 무슬림 로힝야족과 불교도들 사이에서의 충돌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다. 영국에 근거지를 둔 인권 단체 PHR에 따르면 폭동을 일



한 소방대원이 종교 폭동으로 일어난 불을 끄고 있다(AFP)

킨 불교도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로힝야족 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실제 반무슬림 대상의 폭력은 28개 도시에서 일어났다. 현재 무슬림들은 미얀마 내에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BBC는 지난 4월 메이크틸라에서 불교도인 경찰이 무슬림 남자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을 입수, 공개하기도 했다.

만달레이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는 전체 인구의 4-10% 가량 되는 무슬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실패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던 데인세인(Thein Sein)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제까지의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엄중 처벌의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한 자녀 정책" 실패가 낳은 재앙

중국에서 최근 '한 자녀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서의 관계자가 정책 완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듯 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발언은 한 자녀 정책이 가지는 역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성비 불균형이다. 한 자녀 정책으로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면서 중국은 인구 그래프가 달라졌다.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성인층에서 여성이 부족하다. 중국 농촌의 경우, 중국인 신부를 구할 수가 없어 북한으로부터 신부를 사오거나 납치해 온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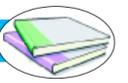
이제는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남편감을 찾는 중국 여자(UCA News)

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구조에 있다.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니린(Ni Lin)의 로이터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은 키, 나이, 교육 정도, 연봉 등과 같은 조건에 있어 여자보다 나아야 한다. 이렇다보니 중국에 가서 남게 되는 C등급의 남성과 A등급의 여성은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채 남는 여성들을 가리켜 'shengnu'(生女)라고 부른다. 수도에 만 약 50만명으로 추산한다.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사안이 심각한 것 같다.

책 소개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저자 한중수 목사

한중수 목사(엘바인침례교회 담임)가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두란노)를 출간했다.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복음 중심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과 성도들을 향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비전이다!'라고 전제하며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과 일치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비전과 헛된 꿈의 차이는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부제 달아

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까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 그 헛된 보이던 꿈은 비전이 된다. 하지만 그 대가를 자기 위해 지불하면 야망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지불해야만 비전이 된다"고 피력하고 있다.

본서는 총 202쪽으로 비전력 1.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전력 2. '비전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전력 3. '비전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로 나뉘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빈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석하라',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영안으로 보이는 비전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지혜자가 되라', '깨어진 자아를 통해 비전을 성취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진정한 비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라',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일하신다', '위대한 인생을 꿈꾸라', '성령을 받은 자는 미래를 꿈꾼다'의 제하 아래 비전을 품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며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본서에는 송자(명지학원 이사장),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의 추천의 글이 수록되었다.

저자 한중수牧사는 연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강사를 거쳐 1982년 도미, 포도원교회를 개척했다. 남침례교회남가주교협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엘바인침례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책 구입문의:

(이성자 기자)

순복음 복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증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목사 안수
 -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필기시험
 - 구약성경 ②신약성경 ③조직신학 ④교회사 ⑤헌법
-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추천서 2인(소정양식)
-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 제 출 기 간 : 2013년 9월 6일까지
-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 고 시 장 소 : 하워드존슨호텔(플러톤)

5. 기타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충재 조용기 목사)
-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최명상 목사 (323)317-3749